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232호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27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공공박물관 및 공공미술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나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 공공문화시설의 불균형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에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구 간 문화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규정 추가(안 제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권역별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 있는 설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고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권역별 박물관 및 미술관 균형 설립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¹⁾에 따라, 2014년부터 4년간 수립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2018년 3월 8일 공고한 바 있음.

동 계획은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서울특별시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1)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2의2.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

< 서울특별시 5개 권역 구분도 >



- 상기 서울특별시의 권역 구분을 기준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을 살펴보면 권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총 189개소이며, 권역별 평균은 37.8개소임. 그러나 도심권(89개소)에 전체의 약 47.1%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2)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특히 미술관의 경우, 도심권(27개소)과 동남권(12개소)에 76.5%가 편중되어 있으며, 서북권에는 등록된 미술관이 전무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 권역별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

기준일 : 2025. 11. 30.

권역		박물관							미술관							합계
		시립	구립	교육청	국립	사립	대학	소계	시립	구립	교육청	국립	사립	대학	소계	
평균		1.8	2.8	0.2	3.4	13.8	5.6	27.6	1.2	0.6	0.0	0.4	7.4	0.6	10.2	37.8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3	4	1	10	38	6	62	2	1	0	2	21	1	27	89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0	3	0	2	7	4	16	0	0	0	0	0	0	0	16
동북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4	4	0	1	5	16	30	2	1	0	0	4	1	8	38
서남권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관악구, 동작구	1	1	0	2	5	2	11	2	1	0	0	0	1	4	15
동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	2	0	2	14	0	19	0	0	0	0	12	0	12	31
총계		9	14	1	17	69	28	138	6	3	0	2	37	3	51	189

- 물론 도심권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타 권역에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집중적으로 설립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서북권과 서남권 거주 시민의 경우, 일상적인 문화 향유를 위해 상당한 이동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러한 현황은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거주 권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역별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 있는 설립이 필요함을 시사함.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권역별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 개정조례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권역별 균형 설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책무로만 규정³⁾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별도로 위임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의 신설 조문은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하지

3) 제10조(설립과 운영)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니하며⁴⁾,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⁵⁾하다고 판단됨.

- 나아가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문화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설립 목표나 이행 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규 설립 시, 부지 확보를 비롯하여 건립 및 운영 예산 등 큰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4)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3232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형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p>〈제안 이유〉</p> <p>○ 박물관·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 권역 간 문화 향유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p> <p>〈주요 입법 요지〉</p> <p>○ ‘시장은 박물관·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 추가(안 제3조제4항)</p>					
추진경과	○ '25. 10. 20.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찬성자: 김규남, 김혜영, 유정희, 이종환 등 27명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권역 간 문화시설의 균형있는 설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고른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함이 적정함.					
대응방안	○ 이견 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박성은(☎2133-4183)	담당	김숙영(☎4199)	